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도민일보	23면	"KIST 강릉 천연물연구소 바이오산업 거점 강원 만들 것"	1
江原日報	21면	“ 10년내 글로벌 신약 개발... 강릉을 천연물산업 메카로 ”	1
연합뉴스	온라인	강원대, 2023 글로벌 에너지.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2
강원도민일보	02면	강특법 개정안 5월입법 관철 여론 결집	3
강원도민일보	12면	국힘 박정하 · 원주 지방의원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플로...	4
江原日報	03면	강원연구-도의회 정책지원관 특별자치도 비릇 현안 논의	5
노컷뉴스	온라인	'7천억 혈세 쏟은' 레고랜드 개장 1년, 입장객 기대치 '반토...	6
KBS 춘천	온라인	[집중취재] 드론택시 중단 파장 ‘ 일파만파 ’ ...소송전 비화	8
江原日報	14면	어버이날 맞이 행사	9
江原日報	10면	홍천군실버 작은도서관 개관	9
江原日報	10면	홍천중 · 석화초 이전 논의 본격화	10
강원타임즈	온라인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제51회 어버이날 및 개관 23주년 ...	11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제24회 원주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13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원제용 강원도의원	14
江原日報	21면	[동정] 원제용 강원도의원(원주)	14
강원도민일보	04면	김진태 지사, 강릉산불 피해 복구 '한마음'	15
江原日報	07면	대학생들과 취업 · 창업 소통의 장 열려	16
江原日報	04면	‘ AI 교과서 ’ 로 국어 · 수학 배운다	17
江原日報	01면	"초교생이 교사 폭행 · 욕설 무너진 교단 이대론 안돼"	18
江原日報	01면	강원특별법 5월 통과 사활... 법안 심사 본격화	19
江原日報	03면	행안위, 강원특별법 개정안 원안에 쓴소리	20
江原日報	02면	예타 앞둔 영월~삼척 고속道 '태백' 딜레마?	21
江原日報	10면	홍천군 국가항체클러스터 기업 유치전 돌입	22
江原日報	14면	태백시 국 · 도비 1,500억 확보 사활	22
江原日報	14면	동해 무릉별유천지 내년 야간 개장	23
강원도민일보	11면	춘천 애막골~거두리 직선 도로 추진	2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실질변화 체감 방향성 전환 필요	2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농기계 임대 사업 체계화해야	26
江原日報	19면	[사설] 영월~삼척 고속도 예타 확정, 이후가 더 중요	27
江原日報	19면	[사설] 양양 오색케이블카 파급 효과, 지금부터 준비해야	28

강원도민일보

2023년 05월 11일 (목)
인물 23면

“KIST 강릉 천연물연구소 바이오산업 거점 강원 만들 것”

연구소 개원 20주년 기념식
글로벌 신약 개발 등 비전 제시
권학철 센터장 과기부 장관 표창

KIST강릉천연물연구소개원 20주년 기념식이 10일 강릉 천연물연구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김홍규 강릉시장,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장준연 KIST 분원장 등을 비롯해 주요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준연 KIST 분원장은 강릉 천연물연구소 Vision 2033을 제시하면서



KIST 강릉 천연물연구소 개원 20주년 기념식이 10일 강릉 천연물연구소에서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김진태 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장준연 KIST 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서 2023년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3건, 2028년까지 글로벌 의약품 2건, 2033년까지 글로벌 신약 1건을 개발하겠다는 목

표를 발표했다. 또 권학철 천연물인포매틱스연구센터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이주영 책임연구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을 수

상하는 등 총 8명이 포상을 받았다.

지난 2003년 설립된 KIST강릉천연물연구소는 지난 20년간 천연물 전주기 연구의 혁신플랫폼 구축, Big data 및 AI기반 천연물 연구 고도화,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제시를 통해 국내 유일의 천연물 연구 전주기 플랫폼을 구축하고 천연물식·의약품 개발과 이를 통한 사업화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장준연 분원장은 “AI 및 Big data 기반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을 통해 천연물로 인류에 행복을 전하는 연구소로 발전해가겠다”며 “향후 KIST 강릉 천연물연구소가 구심체가 돼 강원지역을 천연물 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키워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연제

江原日報

2023년 05월 11일 (목)
인물 21면

“10년내 글로벌 신약 개발 ... 강릉을 천연물산업 메카로”

“2033년까지 글로벌 신약 개발에 성공하겠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 천연물연구소(강릉분원)는 10일 연구소 율곡홀에서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향후 신약 개발을 통해 강릉을 국내 천연물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념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등 100여명의 과학기술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장준연 강릉분원장은 이날 ‘천연물 연구소 비전 2033’을 발표하면서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3건, 2028년까지 글로벌 의약품 2건, 2033년까지 글로벌 신약

KIST 강릉 천연물연구소 개원 20주년 기념식서 포부 밝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10일 KIST 강릉 천연물연구소 율곡홀에서 천연물연구소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강릉=류호준기자

1건 개발을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정부출연 천연물 연구소로서 20년간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제시, 강릉시의 국가산단 청

사진과 부합하는 새로운 도약을 향한 의지를 강조했다. 장 분원장은 “천연물 바이오 연구를 선도하고 고령화 사회 대비 노화, 만성질환 예방기술을

개발하겠다”며 “동시에 AI·빅데이터 기반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을 통해 천연물로 인류에 행복을 전하는 연구소로 발전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KIST 분원의 노력으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강릉시가 국가산단 후보지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국가산단을 강릉시가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오태석 1차관은 “KIST 강릉 천연물연구소가 지역혁신 거점이 돼 기술 혁신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2003년 5월1일 설립된 천연물연구소는 천연물 전주기 연구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반 천연물 연구 고도화,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제시 등의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류호준기자 gwhojun@

강원대, 2023 글로벌 에너지.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11일 'Green Innovation & Sustainability' 주제로 진행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에너지.인프라 융합학과는 오는 11일 춘천캠퍼스 공학1호관 사이버랩에서 '2023 글로벌 에너지.인프라 협력 콘퍼런스'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그린 이노베이션 & 서스테이너빌리티(Green Innovation & Sustainability)'를 주제로 미래 에너지 자원.인프라 관련 신북방.신남방 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석훈 문화예술.공과대학장의 개회사와 김현영 강원대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박종수 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바달츠 덴데브 몽골국립대학교 총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콘퍼런스는 연구 활동 소개, 기조 강연, 각종 주제에 대한 발표 등으로 구성된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오 학장은 "최근 세계적인 안보 위기와 기후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도시재건사업 이슈와 에너지.인프라 관련 난제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집단지성을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 글로벌 에너지.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강원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aetae@yna.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5월 11일 (목)

종합 02면

강특법 개정안 5월입법 관철 여론 결집

오늘 한림대서 강원인 선언 대회

강원도민TV 통해 생중계 예정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11일로 꼭 한 달앞으로 다가오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법전부개정안 5월입법 관철을 위한 범 국민·범도민 여론 결집 작업이 더욱 시급해졌다.

강특법 개정안 5월입법을 위한 첫 관문인 국회 공청회를 10일 마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입법 작업이 본격화됐다. 이와 관련, 강원도 민일보와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범 국민추진협의회는 11일 오전 10시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지방시대 힘찬 개막-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인 선언대회'를 개최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한 달을



이정현
기조강연자

맞아 강원도와 강원도의 회, 18개 시·군, 18개 시·군의회, 강원도교육청, 범 국민추진협의회, 정치권, 경제계, 문화계 등 각계인 사들이 모여 강특법 개정 안 5월 입법 관철을 위해 여론을 결집하는 자리다.

강원인 선언대회에는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최양희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장, 유상범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등과 18개 시·군 시장, 군수, 부단체장, 도의원, 시군의 회 의장, 도단위 기관장 등이 대거참석한다. 특히 이날 강원인 선언대회에는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 위원장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지방 시대, 그 비전과 전략'에 대해 기조강연을 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위한 범도민 서명과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인 선언문이 채택(대표낭독 김기홍·김미정 강원도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된다.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인 선언대회'는 강원도민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2023년 05월 11일 (목)
지역 12면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과 원주 도·시의원들이 10일 원주 샘마루공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플로깅 활동을 벌였다.

국힘 박정하·원주 지방의원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플로깅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과 원주도·시의원들이 10일 원주 기업도시 샘마루공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박정하 의원과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원주권 도의원, 시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공원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인 '플로깅'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의 원주시민 지지에 보답하겠다는 의미로 기획됐다.

박정하 국회의원은 "책임감을 갖고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성공한 대통령,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드는데 힘쓰겠다"며 "특히 내년 총선에서의 압승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회복,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민

江原日報

2023년 05월 11일 (목)

종합 03면

강원연구-도의회 정책지원관

특별자치도 비릇 현안 논의

간담회 열고 특강 등 진행

강원연구원이 10일 연구원 리버티홀에서 강원도의회 정책지원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등 강원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도 주요 현안 토의와 '강원분권국의 미래' 특강 등이 진행됐다. 강원연구원과 도의회 정책지원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특별 관련 조례 제정을 지원하는 등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 지원과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7천억 혈세 쏟은' 레고랜드 개장 1년, 입장객 기대치 '반토막'

강원CBS 박정민 기자

핵심요약

최문순 전 강원도정 "연간 200만명" 강조
10일 레고랜드 발표 "개장 이후 약 1년만에 100만명 돌파"
"200만명, 코로나19 등 악재 반영 안해, 현실적 첫 해 목표 아니었다"



지난해 5월 5일 열린 춘천 레고랜드 개장식.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제공

전임 최문순 강원도정 당시 막대한 혈세를 쏟고 도유지 춘천 중도를 최장 100년 무상 임대해 유치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이하 레고랜드) 입장객이 기대치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레고랜드 측은 10일 "지난해 어린이날 개장 이후 약 1년만에 방문객 수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문순 전 지사와 도청 관련부서 관계자들이 사업 반대 여론을 경제효과를 앞세워 불식시킬 때마다 제시했던 '연간 입장객 200만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 수치다.

이에 대해 레고랜드 측은 "레고랜드는 개별 파크의 방문객 수를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 글로벌 본사의 규정으로 지역사회의 요청에도 방문객 수를 공개하지 못했었다. 또한 목표 수치가 200만명이라고 알려졌으나 이는 문화재 발굴로 인한 개발 규모의 축소 및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반영하지 않았던 과거 유치 단계에서 추산한 기대치로 실제 현실적인 첫 해 목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레고랜드는 지역사회 전반에서 방문객 수 공개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개별적으로 방문객 수를 발표하도록 본사를 설득해왔고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앞으로 100만 단위로 방문객이 누적될 때마다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멀린사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로 50년 무상 임대한 중도 부지 28만 790㎡ 부지(운동, 오락시설 지구)를 표준공시지가로 환산하면 매각 추정금액은 1252억원에 달한다. 무상 임대는 50년을 추가할 수 있다.

여기에 기반 시설 및 테마파크 주변부지 개발 등을 위한 강원도 투자(1419억원)와 강원도가 대주주로 참여한 레고랜드 특수목적법인 강원중도개발공사 투자(4542억원)를 더하면 공공 직간접 부담액은 7380억원으로 환산된다.

투자 대비 경제효과가 미미하다는 여론이 지속되고 불공정 계약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레고랜드를 둘러싼 고발과 진통도 진행 중이다.



강원도청 앞에서 천막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레고랜드 반대 집회를 이어온 시민단체에 대한 집회 시설 철거 대집행이 10일 오전 이뤄지는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실랑이가 빚어졌다. 구본호 기자

박기영 강원도의회 의원은 지난해 말 최문순 전 도지사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업무상 배임과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법률 계약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 전 지사가 레고랜드 운영 주체인 멀린사에 800억원을 송금하도록 지시 혹은 승인하는 방법으로 멀린사에게는 재산상의 이익을, 강원중도개발공사에게는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강원도청 전 간부가 실종 신고됐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송곳 감사, 면도날 감사로 일각에서 제기한 정치 감사의 우려를 도려내고 일말의 의구심도 없이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레고랜드 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을 촉구했다.

이순규 레고랜드 사장은 "실제 운영기간으로는 약 9개월만인 1주년 시점에 100만명이나 되는 고객들이 방문해 주셔서 의미 있게 생각한다. 이미 성공한 글로벌 레고랜드들도 처음엔 어렵게 시작했고 우리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지역사회에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2023년 05월 10일 (수)
강원

[집중취재] 드론택시 중단 파장 '일파만파'...소 송전 비화



[앵커]

강원도가 드론택시 제작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세금만 140억 원이 넘는데, 아무런 소득도 없이 이 돈을 허공에 날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사업의 시작부터 중단, 그리고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송승룡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드론택시 제작 사업이 공식 발표된 건 2021년 3월이었습니다.

당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연료도 리튬이온 같은 일반 전지가 아니라, 액화 수소전지를 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문순/전 강원도지사/2021년 3월 : "세계 최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깊은 자리 (입니다.)"]

총사업비는 271억 원이었습니다.

사업비는 대부분 강원도가, 사업 관리는 강원테크노파크가 맡고, 실제 사업은 드론택시 제작을 비롯한 민간컨소시엄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1차로 기본설계 명목으로, 민간에 13억 원을 준데 이어, 시제기를 개발하라며, 2차로 131억 원을 민간에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이 사업은 돌연 중단됐습니다.

사업 추진 2년여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현지 확인과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김기철/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 "우리가 비용을 넣으면,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물에 대한 믿음이 안 보였던 거예요."]

이에 따라, 사업비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단, 기존에 지출한 비용은 제외하고 잔액만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환수 대상액은 109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9억 원에 대해선 돈을 가져간 기관들이 반납 의사를 밝혀, 환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사업자인 드론택시 한 곳에 준 돈 100억 원입니다.

해당 업체가 반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멀쩡히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없애고, 시제기 개발을 위해 현금을 다 한 회사에 이러한 행태로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조금의 양심도 없는 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테크노파크는 사업비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형사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송승룡

江原日報

2023년 05월 11일 (목)

지역 14면



어버이날 맞이 행사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어버이날 및 개관 23주년 기념행사가 10일 복지관에서 심규언 시장, 이동호 시의장, 최재석·김기하·유순옥 도의원, 안성준·김향정·민귀희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년 05월 11일 (목)

지역 10면



홍천군실버 작은도서관 개관 홍천군실버 작은도서관 개관식이 10일 도서관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이영욱 도의원, 최이경 군의회 부의장, 나기호·황경화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년 05월 11일 (목)

지역 10면

홍천중·석화초 이전 논의 본격화

군·교육청 추진위원회 발족
의견 수렴·재정 확보 나서

【홍천】홍천 석화초교와 홍천중 이전 논의가 본격화된다.

홍천군과 홍천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이영욱 도의원, 용준식 홍천군의원, 이규설 홍천군번영회장, 신은섭 홍천군체육회장 등을 비롯해 군청과 교육청 관계자들로 구성된 ‘학교이전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석화초교와 홍천중 이전은 2010년부터 논의된 지역의 오래된 현안이다. 석화초교의 경우 홍천읍 갈마곡리 등 인구밀

집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통학 불편으로 인해 학생들이 진학을 꺼리며 남산초교, 홍천초교의 과밀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갈마곡리로 학교를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홍천고와 운동장을 함께 쓰고 있는 홍천중 역시 홍천읍 연봉리로 단독 이전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인근 중학교와 통합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추진위는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최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으로 교육감이 시행하는 투자사업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일부 변경되는 등 학교 이전에 긍정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관련 기관 재원 분담 등 재정 확보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영욱 학교이전추진위원장은 “학교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 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하고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해 홍천을 강원교육의 1번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강원타임즈

2023년 05월 10일 (수)
강원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제51회 어버이날 및 개관 23주년 기념

2023년 5월10일 노인복지기여자 및 효행자 표창, 새 도약 응원



【강원타임즈】김장희 기자 =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양동호)은 2023년 5월10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사랑해효, 감사해효'라는 주제로 제51회 어버이날 및 개관 2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심규언 동해시장 및 이동호 동해시의회의장, 최종수 대한노인회 회장을 비롯 도의원 및 시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고, 어버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했다.



또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의 개관 23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동해삼육고등학교 학생들의 합창을 시작으로, 축시 낭송, 노인복지기여자 및 효행자 표창과 함께 심규언 시장이 직접 대표어르신 2분에게 카네이션과 선물을 증정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또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사회 어르신 500여명에게 점심특식을 무료로 지원하고 마스크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특히, 모범기계공업(주)에서 중식비 200만원과 음료 450개, 노무법인 더 보상에서 수건 400개를 후원했으며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체크를 지원하는 등 지역 사회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더해 보다 뜻깊고 풍성한 행사로 마무리했다.

심규언 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버이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가슴깊이 새기며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23년의 시간동안 노인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더욱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동호 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준비한 어버이날 선물과 감사의 마음이 잘 전달됐길 바라며, 어르신들의 일상에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하도록 끊임없이 소통하며 동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은 2000년 5월8일 개관해 지역사회의 든든한 울타리로 기능하며 복지관의 각종시설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江原日報

2023년 05월 10일 (수)
사회

[포토뉴스]제24회 원주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원주소방서(서장:박순걸)는 10일 원주양궁장에서 박정하 원주갑 국회의원, 최재민 도의원, 김태훈 원주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했다.

江原日報

2023년 05월 10일 (수)
종합

[동정] 원제용 강원도의원

원제용(원주) 강원도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원주향교 명륜당에서 열리는 춘기 석전대제에 참석.

江原日報

2023년 05월 11일 (목)
인물동정 21면
춘기 석전대제

◇원제용강원도의원(원주)



은 11일 오전 10
시 원주향교 명
륜당에서 열리
는 춘기 석전대
제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년 05월 11일 (목)
종합 04면



강릉 산불 발생 한달을 맞은 가운데 김진태 도지사가 10일 강릉시 안현동 산불 피해지역을 찾아 도청 직원들, 강원도자원봉사센터 등과 함께 피해복구 활동을 펼쳤다.

김진태 지사, 강릉산불 피해 복구 ‘한마음’

도청 직원 참여 피해지역 복구활동
“이재민 일상회복 최선 자원봉사 감사”

김진태 도지사와 도청 직원들은 10일 강릉 안현동 산불 피해지역을 찾아 피해복구활동에 나섰다.

이날 복구활동에는 김 지사와 도청 직원 30여명, 박광구 강원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의용소방대, 적십자봉사회, 자원봉사코치모임 등 평창군 6개 봉사단체 소속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하며 피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산불 피해지를 중심으

로 불에 탄 나무들과 산불 잔해물 제거 및 쓰레기 줍기와 피해건물 주변을 정리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광구 강원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강원도는 모두 한 가족이다. 자원봉사자들도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강릉 피해 복구활동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 산불 발생 후 한달 동안 전국에서 46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강릉을 찾아 이재민 지원, 산불 피해복구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김덕형

江原日報

2023년 05월 11일 (목)

경제 07면

대학생들과 취업·창업 소통의 장 열려

도 강릉서 특별한 경제캠프
김진태 지사-학생들 대화

강원도가 10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에서 대학생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제캠프를 열었다.

이날 경제캠프에는 가톨릭관동대, 강릉영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삼척캠퍼스, 강원도립대 등 영동권 대학생 50여명이 참여했다.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달라지는 강원경제에 대해 설명하고, KB금융공익재단은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재무설계 방법을 강의했다.

강릉에서 위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업에 성공한 더웨이브컴퍼니의 최지백 대표는 대학생들에게 창업과정을 소개했다. 취업에 성공한 영동지역 대학 출신 선배들도 생생한 취업과 창



◇강원도가 10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에서 영동지역 대학생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제캠프를 개최했다.

업 경험을 후배들에게 알려주며 사회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아주 TALK 별한 만남’이라는 주제로 학업과 진로, 지역 정착에 필요한 것 등을 대학생들에게 묻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제캠프를 체험한 대학생들은 고민과 취업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

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영동지역에서 처음 경제캠프를 개최했다”며 “앞으로 이런 자리를 더 만들어 대학생들과 소통하고 강원 미래인 청년들이 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현정기자

江原日報

2023년 05월 11일 (목)

사회 04면

‘AI 교과서’로 국어·수학 배운다

디지털 교육혁신 시범 교육청
도교육청 포함 전국 16곳 선정

강원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추진할 시범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10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 사업을 공모한 결과 강원도교육청 등 16개 교육청을 시범 교육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7개 내외 교육청을 시범 교육청으로 운영하려 했으나 공모 결과 대부분의 교육청이 디지털 교육으로 조속히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고, 보다 많은 교육청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시범 교육청은 향후 교육부로부터 예산, 컨설팅, 교원 연수를 지원받아 올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선도학교 300개교를 운영하게 된다. 디지털 선도학교는 민간·공공이 개발한 AI 코

스웨어를 자유롭게 활용해 수업 혁신 모델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만 교육부는 시·도별 역량과 준비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디지털 선도학교 수와 특별교부금 예산을 유형별로 차등 배정했다. 강원도교육청은 2유형으로 분류돼 5억원을 지원받아 선도학교 5개교를 선정·운영하게 된다. 1유형으로 분류된 경기, 경북, 대구, 서울, 충남, 충북은 교육청당 40억원을 지원받아 선도학교 40개교를 선정한다.

각 시범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자체적으로 선도학교를 지정하고, 여름 방학 기간 교원 연수 등을 추진해 선도학교 운영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2025년 3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까지 현장에서 체계적인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江原日報

2023년 05월 11일 (목)

종합 01면

“초교생이 교사 폭행·욕설 무너진 교단 이대론 안돼”

**교사노조 교권침해 사례 수집
매년 피해 140~160여건 달해
학부모는 아동학대라며 협박**

5월15일 스승의 날을 앞둔 가운데 강원지역에서도 교권 침해 행태가 갈수록 증가·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원교사노동조합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SNS를 통해 교권 침해 사례를 수집한 결과 다양한 경험담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사안은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의 폭력적 행동이다. 모 고교 교사는 “만취 상태로 수업에 들어와서 업무 활동을 방해하고, 반말, 욕설, 밀치는 행동 등을 했다”며 “이런 일을 당해도 제지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이 교사에게 ‘개XX’, ‘이딴 선생’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차고, 가구를 던지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학교 현장에서 수위 높은 욕설과 폭행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육 침해 활동도 적지 않았다. 이번 사례 수집에서 교사들은 학부모가 자녀 교육활동 등과 관계없이 계속 전화 통화를 요구

하거나 특수학급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몰아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강원도교육청에 접수된 교육 활동 침해 건수는 지난해 154건, 2021년 160건 등으로 매년 140~160여건에 달한다. 올해도 4월 말 현재 42건이 접수된 상태다.

교권 침해 수위가 갈수록 높아져 교사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호소가 늘어나고 있다. 류혜진 도교육청 교권전담상담사는 “교권 침해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교사들은 강한 우울감과 정서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끝까지 참고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버티기 힘든 상태가 돼서야 오는 분들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위원장은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이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보복성 악성 민원에 대한 두려움, 교육공동체에서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교사의 인내와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피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대책과 치유 지원 등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원선영기자

江原日報

2023년 05월 11일 (목)

종합 01면

강원특별법 5월 통과 사활 ... 법안 심사 본격화

국회 행안위 공청회 ... 허영 의원 “정부 협의 서둘러야”

속보=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공청회가 10일 열리면서 법안 심사가 본격 시작(본보 지난 9일자 1·3면 보도)됐다. 강원도와 도내 정치권은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5월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관련기사3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 법안심사와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 등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까지 행안위 소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는 22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 이후 30일 열리는 본회의까지 빠르게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와의 ‘무쟁점 협의안’ 도출이 관건이다.

이날 국회를 찾은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현재 100%는 아니어도 정부 부처와 출범 시기에 맞춰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두가지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소위원회 법안심사 전까지 부처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강원도와 정부 부처 간 합의안만 만들어진다면 회의 일정에 따라 무조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며 “쟁점이 남아있으면 법안을 그대로 보류시켜 버린다. 소위 법안심사 전에 (정부와의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이하늘기자

江原日報

2023년 05월 11일 (목)

종합 03면

행안위, 강원특별법 개정안 원안에 쓴소리

국회 입법공청회 시선집중

7명 위원 규제 해소 특례 주목
‘환경영향평가 권한 위임’ 지적
도 “추가 보완 법안 심사 대비”

속보=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 소위원회가 10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입법공청회(본보 지난 9일자 1면 보도)를 연 가운데 ‘요구가 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입법공청회는 실질적인 법안 심사 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로 올 2월 제출한 137개 조문이 담긴 원안을 살폈다.

김교흥 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식, 조웅전, 김용관, 박성민, 정우택, 조은희 등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한 입법공청회에서 일부 위원은 핵심 규제 해소를 위한 특례에 주목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조문을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현재 환경부 장관과 산림청장에게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해제 △보전산지 변경·해제 관리 권한 등을 강원도지사에게 넘기도록 돼 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일부 위원은 “과도한 권한이 양으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타 지역에서도 요구할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른 위원은 “전부개정안 전체가 특색이 없다. 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 적절치 않다”고 발언했다. “재정분권을 강하게 요구해야 실질적인 분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보완 필요성을 지적한 위원도 있었다.

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금창호 한 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이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해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공청회는 정부 부처와의 협의안이 아닌 원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법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들의 분위기를 살피는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

문제는 오는 22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실질적인 법안 심사 과정이다. 정부 부처와의 최종 협의안이 완성되면 행안위 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의 필요성도 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는 “공청회 자리여서 정부 부처 간 협의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부족했다. 김교흥 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 행안위 전체 의원들에게 잘 설명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보완해 법안 심사에 잘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 법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법안이 반드시 5월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

江原日報

2023년 05월 11일 (목)

종합 02면

예타 앞둔 영월~삼척 고속도 ‘태백’ 딜레마?

내년 하반기 노선안 윤곽 전망
태백지역 ‘삼수동 분기점 기대’
국토부 ‘직선화’ 입장과 시각차
道 ‘노선 언급 시기상조’ 손사래
“지역 결집 예타 통과 관철 우선”

속보=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본보 10일자 1·3면 보도)되면서 향후 추진 일정과 노선안에 관심이 쏠린다. 강원도는 예타 통과 시 실제 설계가 이뤄질 내년 하반기께 노선안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도가 제시한 예타 노선안을 보면 정선 분기점은 정선군 남면 행정복지센터 부근, 태백 분기점은 삼수령 한국수자원공사 태백지사 주변, 삼척 분기점은 동해고속도로와 만나는 삼척IC 등을 경유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예타 통과 가능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선을 보다 직선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직선에 가깝게 설계할수록 사업비를 줄일 수 있지만 노선 남쪽에 위치한 태백 도심과의 거리는 멀어진다.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태백 지역사회의 요구 사이에 딜레마가 생긴다.

강원도는 아직 노선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노선 확정 설계가 시작되는 내년 하반기에나 이뤄진다는 점에서 우선은 최종 관문인 예타 통과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통과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게 된다. 통상 기본 및 실시설계에는 16개월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시·군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노선안이 나온다. 또 예타 통과 후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총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공사비 증액이 가능해 노선 선정에도 다소 여유가 생긴다. 강원도

는 정부에 내년 예산안 편성 시 기본 및 실시설계비 3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장운표 태백발전법추진위원회 회장은 “영월~삼척 고속도로 노선에 따라 태백이 육지 속의 섬이 될 가능성도 우려되니 태백 분기점이 삼수동 쪽으로 들어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는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균형발전 측면의 정책성과 지역의 필요성은 높지만 경제성은 낮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타 통과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우선 지역이 결집해 예타 통과를 관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최기영·김광희기자

江原日報

2023년 05월 11일 (목)

지역 10면

홍천군 국가항체클러스터 기업 유치전 돌입

10~12일 BIO KOREA 참여
입주상담·제품 전시 등 진행

【홍천】홍천군은 국가항체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기업 유치 활동에 나선다. 군은 10~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BIO KOREA 2023'에 참여해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홍보를 실시 중이다.

강원도, (재)강원테크노파

크,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 연구원, 서울대 시스템면역의 학연구소 등과 함께 독립부스를 설치하고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관련 기업 지원사업, 기업 입주상담, 입주예정기업 브로슈어·제품 전시 등을 진행한다.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는 항체 치료제, 면역 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이다.

현재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 지원센터,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 지원센터, 미래 감염병 신속 대응연구센터,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 등의 조성과 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육성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조정순 군 미래성장추진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hwy@

江原日報

2023년 05월 11일 (목)

지역 14면

태백시 국·도비 1,500억 확보 사활

시 “공모사업 선정 총력”

【태백】태백시가 올해 1,500억 원 이상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전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중앙부처와 강원도 등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총 12건의 사업이 선정돼 국·도비 48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공모사업 국·도비 확보액은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273억원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사업 190억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14억원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사업 6억원 등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 성과는 시가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펼친 결과로 평가된다.

시는 현재 심사 중인 9개 공모사업과 응모 준비 중인 3개 사업에 대해 선정 당위성 및 논리개발로 최종 선정될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호 시장은 “앞으로도 올해 국·도비 1,500억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희기자 kwh635@kwnews.co.kr

江原日報

2023년 05월 11일 (목)

지역 14면

동해 무릉별유천지 내년 야간 개장

야간 경관조명 시연회

하반기 착공 연말 완공

【동해】동해시가 무릉별유천지 내에 야간 경관조명 시설을 도입, 인근 관광지와 연계를 통한 야간 경관 특화도시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심규언 시장을 비롯한 시·제안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서 ‘무릉별유천지 야간 경관조명 시연회’를 실시했다.

시는 청옥·금곡호 호수 둘레와 라벤더정원 위주의 부분 공간에 대한 경관조명 설치 규모를 확정하고, 설계를 거쳐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가 빠르면 올 연말까지 완공, 내년부터 야간

에도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폐광지의 창조적 복구로 새로운 활용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무릉별유천지는 스카이 글라이더, 오프로드 루지 등 이색 액티비티 체험시설과 갤러리, 전망카페 등이 조성돼 있어 드라마·방송 촬영지로도 각광받고 있으며 2021년 11월 개장 이후 지난달 수익금 3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지역 개발사업 관광 분야 ‘최우수 사례’ 및 ‘강원도 유니크 메뉴’에 선정되는 등 앞으로 마이스(MICE) 산업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리조트, 어린이 놀이시설, 테마형 카페테리아, 수변카

페, 글램핑 숙박시설을 비롯해 행사무대, 수변공원 등 1,000억원대 대형 프로젝트 투자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93만4,890㎡에 에메랄드빛 호수 힐링공간을 비롯해 모노레일, 야간 경관시설 등 국비, 지방비와 민자 등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무릉별유천지 2단계 개발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심규언 시장은 “50년간 석회석 채광으로 폐허가 된 폐광지와 산비탈에 체험시설과 라벤더가 있는 정원이 들어서며 환골탈태, 무릉별유천지가 됐다”며 “관광이 지역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익기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5월 11일 (목)
지역 11면

춘천 애막골~거두리 직선 도로 추진

현재 우회 요구 주민민원 속출
시 도시계획위 변경안 심의
춘천박물관~여가원 160m 구간
선형 조정 제기, 재상정 계획

춘천 석사동 애막골과 동내면 거두리를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춘천시가 관련 논의에 나서 도로가 건설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이 일대는 거두리와 애막골 거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거두리와 애막골을 왕래할 경우, 강원경찰청 또는 춘천교대로 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

애막골~거두리 2차선 도로 연결 추진 지점



이 있기 때문이다. 거두리 거주민 정모(30)씨는 “집에서 애막골 먹자골목에 가려면 직선거리로는 짧은 구간이지만 돌아서 가야 해 차를 타고 10분 이상이 소요된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박물관 뒤에 최근 택지 개발이 이뤄져 도로가 개설된 만큼 나

머지 부분만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시역시 이 일대에 도로가 생겨난다면 일대 거주민들의 교통체증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원이 지속되자 춘천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 변경안에 대해 심의했다. 회의 결과 도로 선형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석사동 국립춘천박물관 인근 전원주택단지부터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까지 약 160m 구간 임야에 2차선 도로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전원주택단지 기존 도로와 연구원 인근 도로 폭 확장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고도차다. 첫 심의 당시, 도시계획위원들은 160m 길이의 짧은 구간이지만 경사도가 급한 곳이 있어 선형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길이나는 곳 주변이 전원주택지다 보니 관통하는 도로에 주민협약이 다 이뤄지지 않은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보건 기획행정위원장은 “전원주택지에 있는 길은 춘천시가 관리하는 길이 아니다 보니 도로 관리가 되려면 기부채납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편입건물 등을 조정해 선형을 조정, 다시 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연결 시종점은 같지만 편입되는 건물을 조정해 선형을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은

강원도민일보

2023년 05월 11일 (목)

사설/칼럼 19면

실질변화 체감 방향성 전환 필요

-특별자치D-30,도민 공감대무르려면야성공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 어제(5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 '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향후 법안심사소위 및 행안위 전체회의의 그리고 법제사법위, 본회의 통과 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성급하긴 하나 5월 중순 행안위 전체 심의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출범 전 개정안 통과는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의 특례 조항 및 권한 조정 등 현안 쟁점을 놓고 강원도는 중앙정부와 협상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이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도록 강원도민 여망의 지점을 한데로 모아내는 태세로 전환할 때입니다. 불과 출범 한 달을 앞둔 상태에서 도민의 관심을 법 개정안 자체에만 머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주민의 자치참여권은 어떤 방식으로 보장이 확대되고, 자치결정권에서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따르는지 생활정치적 변화를 체감하도록 초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전히 정치권과 강원도에서 제출한 개정안 137개 조항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의 지점을 실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어제 공청회만 해도 쟁점이 되는 법조항을 놓고

찬성과 반대 팽팽한 논쟁이 벌어지는 대개의 법안 공청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원도측의 진술 중심으로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와 정부 부처 간 세부적인 조항을 놓고 합의 도출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강원도측 진술인의 의견만 듣는 것으로 진행됐다는 사전 정보가 없다면 의아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다보니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위상과 역할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손에 잡히는 변화의 비전이 체감되지 않고 있어 출범에 따른 경축분 위기는 미지근하게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D-30일 기념 '지방시대 힘찬 개막-강원특별자치도성공출범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인선언대회' 개최를 계기로 그동안의 침체 분위기를 털어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기대효과는 3%에 머문 강원도의 경제력 개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강원도민의 행복 추구'입니다. 다수 주민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고, 필요한 정책을 도출하려면 자치가 원활해야 하고, 주민 직접 참여와 주도권 확보가 필수입니다. 도민 공감대가 무르익은 상태라야 성공적인 출범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출범을 향한 30일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5월 11일 (목)
사설/칼럼 19면

농기계 임대 사업 체계화해야

-정비 미흡 재고 부족 불편, 총체적 관리 필요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임대사업이 현장과 맞지 않는 사례가 많아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장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거나 농기계가 부족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임대가 수월할 것으로 믿고 사업소를 찾은 농업인들은 허탕을 치기 일쑤입니다. 농번기에 제때 농기계를 이용하지 못하면 영농 일정을 맞추지 못해 한해 농사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와 농업 관련 기관에서는 농기계 임대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예산이 소모되더라도 영농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농기계 임대는 농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업입니다. 농가마다 비싼 기계를 장만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다양한 농기계가 준비돼 효율적인 영농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구나 농업인들 평균 연령이 높아 고령화한 농촌에선 농사를 한층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 사업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는 총 68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운영 중이고 농기계 보유대수는 총 1만1807대입니다. 지원 농가는 2020년 5만1083곳에서 2021년 6만671곳, 지난해 6만4517곳으로 해마다 늘

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임대 수입 역시 14억379만원에서 20억6498만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임대사업은 농가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소는 장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거나 기계가 부족해 농가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합해 있어야 할 트랙터와 로터리 장비는 분리돼 있고, 조작 레버도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가 넉넉히 준비되지 않아 제때 임대를 못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특히 농사 경험이 적은 귀농 귀촌인들은 영농 일정만 잡아놓고 논밭 일을 못하는 딱한 상황을 맞아야 합니다.

농촌지역 대부분의 임대사업소는 원활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적지 않은 곳에서 정상적인 임대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데다 예산이 모자라는 등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와 농협 등 농업 관련 기관과 단체가 더 큰 관심을 두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농업 기계화를 한 단계 더 진척시키고 농촌지역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도 영농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江原日報

2023년 05월 11일 (목)

사설/칼럼 19면

영월~삼척 고속도 예타 확정, 이후가 더 중요

정부가 강원 남부권 숙원사업인 영월~삼척 고속도로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당초 비용 대비편익(B/C)이 너무 낮게 측정돼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았지만 당위성 설파와 정치력으로 대반전을 이뤘다. 도와 정치권이 영동 남부와 폐광지 숙원사업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고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까지 뒷받침되면서 예타 대상 사업에 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예타 선정 사유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강원 남부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서(동해항~평택항) 간 화물 연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경기 평택부터 삼척까지 국토를 횡단하는 국가간 선도로망 동서6축 구간

중 현재 영월~삼척 구간만 유일하게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평택~제천(127km) 구간은 이미 개통·운영 중이며 제천~영월(29km) 구간은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설계가 진행 중이다. 이제 과제는 이르면 올 10월,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올 예타 통과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평가 지수를 끌어올려야 한다. 우선 국가 고속도로망 연결은 지역 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정부에 설득해야 한다. 영월~삼척 구간은 산간지역이다. 당연히 B/C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건설단계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건설단가는 km당 702억원이다. 통상 고속도로 건설단가는 km당 400억원가량이다. 단순한 B/

C 분석만으로는 영원히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없는 구간인 셈이다. 따라서 예타 단계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반면 미래 가치는 매우 높다. 경기 평택에는 대규모 수소 융·복합 특화단지, 삼척과 동해에는 수소 산업 클러스터와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안전성시험센터, 실증테스트베드 등이 구축된다. 국내 수소산업의 양 축이다. 두 지역을 최단 거리로 잇는 고속도로의 가치는 막대할 수밖에 없다. 강원도가 이를 ‘하이드로젠 하이웨이(수소 고속도로)’라고 명명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하니 정부가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인구 밀집으로 인한 수도권 팽창을 완화하고 소멸 단계를 밟고 있

이르면 올 10월 예타 통과 결정될 수 있어

미래 가치 등으로 종합평가 지수 끌어올려야

국가 균형발전 위한 선제적 투자 사례 되기를

는 지방을 살리는 길이다. 이 사업은 강원 남부권의 생존 문제와 직결돼 있다. 폐광지 인구는 1975년 53만5,000여명에 달했으나 2022년 기준 17만5,000여명으로 70%가량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핵심 교통 인프라 건설에 선제적인 투자를 결정한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이다. 영월~삼척 구간 개통을 통한 경기 평택~삼척 간 동서 고속도로가 완성돼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원활해지면 유례없는 수도권 집중도 완화될 수 있다. 영월~삼척 구간이 예타를 통과할 경우 2034년 평택~삼척 간 전 구간 개통이 가능해진다. 지금부터 신발끈을 다시 묶고 예타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江原日報

2023년 05월 11일 (목)

사설/칼럼 19면

양양 오색케이블카 파급 효과, 지금부터 준비해야

급변하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양양군·군의회·도 의원들의 ‘양양 미래전략 구상’ 난상토론회가 지난 9일 춘천 남이섬에서 열렸다. 우리가 이 토론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고정관념과 기존 시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토론회 장소가 춘천 남이섬으로 정해졌다. 김진하 양양 군수를 비롯, 관계 공무원, 지역의 도·군의원 등이 함께 모여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날 토론회에서 가시화된 오색케이블카의 효과를 지역 전체에 파급 시키기 위한 방안, 민간자본의 투자가 물리고 있는 낙 산지역과 양양읍 상권을 연결하기 위한 전략 등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는 점이다. 케이블카는 관광의 수단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의 수단, 국립공원 관리의 수단이다.

이제부터 오색케이블카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강원 관광산업, 나아가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오색케이블카는 강원 관광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침체돼 있는 설악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아울러 양양국제공항은 물론이고 속초항을 기점으로 한국·러시아·일본을 잇는 한국형 크루즈 관광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산악관광과 해양관광이 연

계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 모든 게 자치단체의 몫이자 책무다. 세계 각국이 케이블카를 통해 자연 보호와 관광객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관광객의 발길을 끄는 콘텐츠와 프로그램 발굴, 시스템 구축에 팔을 걷어붙여야 마땅하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대책들을 보다 더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케이블카설치는 결코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친환경 개발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친환경 모델로 건설되는 오색케이블카는 개발과 환경 보전, 규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케이블카가 완공되면 노약자와 장애인까지 천혜의 경관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모든 국민이 국립공원에 대한 접근 향유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할 수 있다. 오색케이블카를 반드시 자연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살리기가 공존하는 귀중한 사례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역동적으로 사람이 북적거리며 지역에 생기를 불어일으킬 수 있도록 연계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선호할 콘텐츠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도심 상권으로 이끌 프로그램을 기획하지 않으면 안 된다.